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 741 호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트럼프-바이든 뉴햄프셔 경선 각각 승리…재대결 조기 확정될듯



23일(현지시간) 미 대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슈아에서 열린 '나이트 파티'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 53.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5.6%를 각각 득표했다고 전하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

다 주지사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구도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간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선거인단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 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

트럼프, 양자대결서 헤일리 누르고 2연승…대세론 굳히기 나서 바이든, 후보등록도 안한 비공식 경선서 압도적 승리로 '순항'

다고 전했다. CNN, ABC, CBS, NBC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개표가 진행중인 와중에 연설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 뒤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2명으로 전체(2천 429명)의 0.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헤일리 양자 구도로 공화당 경선판이 압축된다. 처음 치러진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경선인 15일 아이오와 코카스(당원대회)에서 51% 득표로 승리한 이후, 경선 후보였던 사업가 출신 비백 라마스와미, 론 디샌티스 플로리

트럼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아이오와에 이은 2연승으로 대세론을 더욱 굳하게 됐다.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헤일리 후보는 2월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프라이머리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음에도, '전국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주(州)법으로 못 박은 뉴햄프셔주가 이에 반기를 들고 23일 경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마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헤일리 후보의 경선 중도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현재 대선 뒷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

황이어서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며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며리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내달 3일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프라이머리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음에도, '전국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주(州)법으로 못 박은 뉴햄프셔주가 이에 반기를 들고 23일 경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을 직접 적어넣는 투표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시종 70% 안팎의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지키며 승리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CNN 방송은 이날 경선 종료 직후 자체 예측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

민주당 프라이머리 수기식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당은 주별로 경선을 마친 뒤 공화당은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로 대세를 굳혀감에 따라 양당은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사실상 두 사람을 각각 자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11월 대선 리턴매치가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동시에 양당은 사실상 본선 대결 구도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수 306대 232로 사실상 이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다.

전국 득표율은 51.3% 대 46.9%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다. / 송진영 기자

검찰,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명으로 꼽힌 제조책 이모(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 이현승 기자

합참 "북한,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에 무게…전술핵 공격 능력 과시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진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작년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주장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열흘 만이다.

북한군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평양 서쪽 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도는 모습이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의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통상 원형 혹은 8자형 궤도로 시험발사를 한다. 저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및 낙하 지점을 포착하기 어렵다.

북한군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거리가 짧지 않아 고 지상에서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살-1·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소식통은 "정확히 무엇을 발사했는지는 추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작년 9월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후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화살-1·2형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살라미 전술'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살라미 전술은 이탈리아식 드라이 소시지 살라미를 얇게 썰듯이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파기 선언 이후 서북 도서 인근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고, 김정은의 주적 발언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 '해일'이라는 전술핵 탑재 수중 핵弹을 시험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은 총선 전까지 이렇게 계속 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조규현 기자


GANGWON 2024
 GANGWON 2024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KT가 함께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KT

KT 하이오더

- 테이블 회전을 개선·운영비 절감
- 다양한 결제수단·외국어 지원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상품문의 1588-0114

노동·중기·국도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준비 기회 달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국회에 법 개정 재차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이어 “83만7천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

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83만7천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 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 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이철민 기자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준 1심 선고 공판 출석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준 무죄 “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

류석준(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디黢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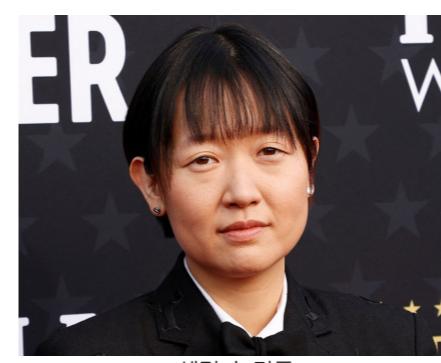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으로 4가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 밖의 정대협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류 전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 이랑 얹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권민혁 기자



셀린 송 감독

영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됐으며,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졌다.

이 영화는 주인공처럼 실제로 12살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송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송 감독은 과거 한석규·최민식 주연의 ‘넘버 3’(1997) 등으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송 감독은 이 영화가 모든 평범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완전히 특별한 순간”的 현실을 그려내 관객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끌었던 것은 관객과 연결되는 방법이었다”며 “이 영화는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게 그것을 들려주게 만든다”고 말했다.

/ 이지현 기자



마약 앞에
나약하지 않아

마약은 환각, 망상에 머리카락과 치아손실, 피부괴사 등 무서운 고통을 줍니다

We're Strong!

마약과 끝낼신호 SOS | 1899-0893

Support On Stop and Start

부도, 공사중단, 미분양에 공매까지…벼랑 끝 건설업계

작년 분양·임대보증사고 9천445억원으로 급증…계약자들도 피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건설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그 여파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분양 계약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부도 처리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건설업체가 잇따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이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공고를 보면 작년 12월 건설사 10여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1곳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7곳(50%) 늘었고,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천347건으로 23% 늘었다.

자금난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건설사가 늘면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사고도 급증했다.

분양·임대보증은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15건(분양보증 사고 12건, 임대보증 사고 3건), 사고 금액은 9천445억원에 달했다. 2022년에는 1건, 57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165배 급증한 수치다.

새해 들어서도 벌써 전북 익산에서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3월 준공 예정이었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면서 작년 8월부터 공사 현장이 멈춰 섰고, 작년 말에는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HUG는 올해 초 이 사업장을 보증하고 현장으로 분류하고 계약자(임차인) 126명에게 각각 1억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작년 6월에는 '신일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현장 4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가운데 두 곳의 계약자들은 분양대

금을 돌려받았고, 오는 3월 입주 예정이었던 나머지 2곳은 대체 시공사를 찾는 중이다.

HUG가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더라도 원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대출 등으로 조달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계약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시공사 교체 시에도 대체할 건설사를 제때 찾지 못해 계약자들이 공사 지역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된다.

HUG 관계자는 "요즘처럼 공사비가 오르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체할 건설사를 찾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대구의 옛 동부정류장 자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12월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작업을 중단·형틀 공사 등 일부 공정이 차질을 빚었고, 서울 종량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같

은 이유로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 지난 17일부터 골조 공정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얼어붙은 분양시장도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천 925가구를 기록한 가운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하고 남은 '악성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달한다. 작년 초(7천546가구) 대비 38% 늘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시행사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공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건설이 작년 8월 대구시 수성구에 준공한 빌리브 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 121가구는 준공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빙집으로 남아있다.

분양률이 17%에 그친 가운데 시행사가 작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1천4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미분양 121가구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해 들어서도 분양시장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지가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규한 기자



4월 3일 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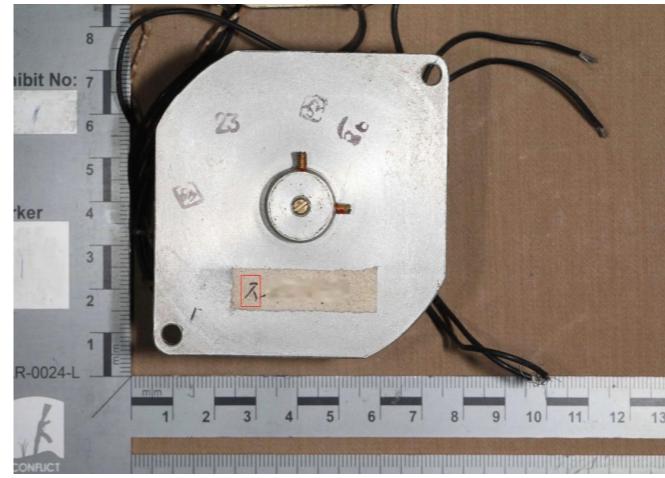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옮겨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해왔다. / 노현주 기자

우크라에 쏜 러 미사일에 ‘한글 표기’…“北 미사일 사용 명백”

부품 잔해에 ‘ㅈ’ 표시…英 연구소, KN-23·24 추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의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ㅈ’ 표기

에 적혔다. 미사일 잔해 여러 부품에서 '112'라는 숫자도 발견됐다. 연구소는 이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에서 2023년을 가리키는 '주체 112년'이거나 융성기계연합기업소 산하 군수공장인 '2월 11일 공장'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소는 문자·숫자 표기 외에도 미사일 잔해의 로켓 모터, 추력 방향을 조절하는 제트날개, 볼트 결합 양상 등의 형상을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 및 KN-24 사진과 비교 분석해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쏜 미사일이 북한제 KN-23 또는 KN-24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이상 추정 범위를 좁힐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사일의 하단부 직경은 110cm로, KN-23의 원형이라 일컬어지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95cm보다 다소 컸다고 한다.

연구소는 분석 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명백하게 사용됨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의 이런 무기 사용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제를 저해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KN-23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해졌다.

/ 정호성 기자

‘5·18 펌훼’ 논란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직 상실

5·18 민주화운동
을 펌훼하는 내용
의 신문을 동료 의
원들에게 돌려 논
란을 빚은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잃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
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허 의장을 대신해 이봉

락 제1부의장이 진행했다. 허 의장은 표
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
청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
장했다.

애초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에 대한 불
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
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
정을 ‘셀프’ 거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현재 전체 40석 중 국민
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1991년 초대 시의회를 개원한 인천에
서 현재 9대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불신임
안이 의결돼 의장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
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의
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허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
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 박현주 기자

일상, 당신답게

지키다, 삼성화재답게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시나리오 연구_교통안전문화연구소

Level 4 Driving Scenario
Actual accident situations during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Zero' 사회를 만드는_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_기업안전연구소
빅데이터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_헬스케어서비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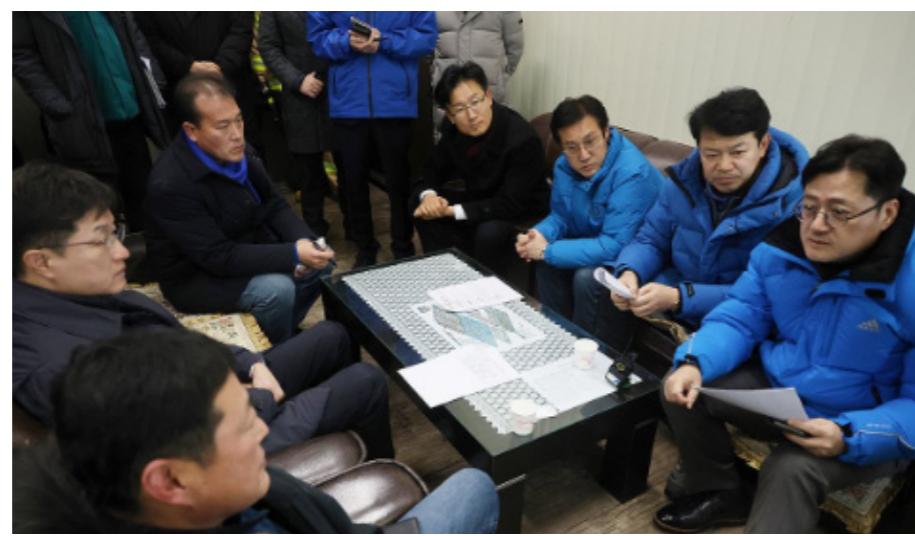
홍익표 “尹·韓, 재난현장을 화해 장식품으로 사용해 매우 유감”

“한동훈, 쌍특검 찬성 의견 내라…국민 눈높이 맞추는 자세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데 대해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을, 재난의 현장을 그로 인한 장식품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인들이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온다고 해서 기다렸고 그분들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리는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화해 모습, 그 두 분의 투성이 메인뉴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서천특화시장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했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다”며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처

벌받는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다면, 한 위원장은 카톡 지시 대신 다시 진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개인 회생 법인 파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전이라도 금융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중견 한계기업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경청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여야는 ‘네탓’ 공방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 24일에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는 27일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 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 철거(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 철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귀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남희정 기자

이준석 “한동훈 ‘삼일천하’도 안돼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

“특검을 사과 문제로 축소하고

김경을 자르라는 식의 약속대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삼일천하도 아니었다”며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이제 쟁점이 좀처럼 김경을 비대위원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본다. 김 비대위원을 괴롭히기 위한 2차 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처음으로 공개 거론한 김 비대위원은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김 여사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결국 김 여사의 특검 문제를 사과 문제로 축소하고, 그 대신 김 비대위원을 자르라는 식”이라며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특검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약속 대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이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게 되면 한 위원장은 오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비론말하고 본인이 위축한 비대위원을 버리는 것이고, 대통령 실이 물려난다면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지난 대선 당시 당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겪은 갈등을 거론, “나는 윤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겪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尹·韓 갈등’ 급한 불 껐지만…‘명품백 의혹’ 불씨 여전

‘완전 봉합’ 해법도 분분…‘용산 결자해지론’ vs ‘김경율 사퇴론’

공천 국면에서 ‘당정 힘겨루기’ 이어지며 갈등 재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조성됐던 갈등 양상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권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필패’, ‘공멸’이라는 인식 아래 갈등 촉발 역세 만에 서둘러 응급 처치를 한 모습이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등이 갈등 해소와 확전 자제를 위해 물밀 중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여권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 신뢰 관계”라고 강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주 굿 뉴스”라며 “그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만나서 (갈등 봉합) 모양새를 갖춰줘 공관위원장으로서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전체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봉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갈등의 본질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입장이 변했느냐’고 묻자 “내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해법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갈등의 시작점이 됐다고 지목받는 김경을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몰카 공작’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완전한 갈등 봉합을 위한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 논란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실의 ‘결자해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한 당직자는 “봉합이 됐다기보다는 뚜껑만 닫아놓은 것”이라며 “이제 숙제는 용산에 있기에 답을 해야 한다. 사과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고 마음을 돌릴만한 방법을 용산이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등 김 여사를 향한 거친 언사를 문제 삼는 쪽에서는 그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평 변호사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갈등 깊숙한 곳에 내재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먼저 (한 위원장) 즉근 인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대단히 치욕적인 언급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공천 힘겨루기’라는 시각도 있다. 공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당정 간 힘겨루기 속에 열기설기 봉합한 양측의 갈등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비대 위원에 대한 사천이니 이런 건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공천 문제가 남아있다”며 “공천은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900원 월 15,900원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구속된 지 1년만…보증금 1억원·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수원구치소 나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된 뒤 7월 특정경

제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침이 구치소로 전달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

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체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 송진영 기자



답변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재판 증인출석 연기 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령관은 이달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달 1일 열릴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 증인 출석일을 변경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계획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면 1일에도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재윤 기자

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1년여 만에 첫 피고발인 조사…임대수익 축소 의혹 등도 조사 대상



2년 전 가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최 전 지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경찰은 최 전 지사가 2018년 강원중도 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로 하여금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지를 고발했다.

박 의원의 고발 이전부터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송사가 끊이질 않으면서 경

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레고랜드 관련 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지를 고발했다.

박 의원의 고발 이전부터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송사가 끊이질 않으면서 경

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레고랜드 관련

사건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피고발인 조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은 레고랜드 사건 외에도 도의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는 2020년 4월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UAM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특정사를 주관사업자로 내정하고, 승인 절차 없이 전원공급 방법을 액화수소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했다며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서종익 기자

경찰, ‘청량리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주택과를 포함한 부서들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 권정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연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본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 한창민 기자

**posco
INTERNATIONAL**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이·하마스, 한달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원칙적 합의”

백악관 “장기휴전에 절대적 지지”…현지에 중동특사 파견

서 달 넘게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합의에 근접했으나 가지지구 내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낼 방안을 둘러싼 이전 때문에 그 시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이스라엘인 1천200명 정도를 살해하고 240여명을 극지인 가지지구에 인질로 끌고 갔다.

인질 105명은 작년 11월 일시 휴전 때 풀려났고 일부는 숨져 하마스가 현재 억류한 인질은 13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 진행되는 이 같은 서틀외교가 작년 12월 28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하마스가 애초 최초 휴전 기간



인질 석방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

을 수개월로 제시했으나 이스라엘이 반대해 30일 정도로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잠정적 합의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교전을 멎추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면서 가지지구 원조를 늘리면 그 대가로 하마스가 민간인을 시작으로 군인까지 가지지구에 억류한 인질을 풀어주는 것이다.

하마스는 미래에 이뤄질 영구적 정전의 조건이 합의되기 전까지 이 같은 30일

휴전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한 번에 한단 계씩 협상하기를 원하지만 하마스는 초기 휴전으로 인질을 풀어주기 전에 항구적 정전안까지 합의하는 ‘페키지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소식통들은 1개월 휴전에 영구적 휴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마스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하마스가 2단계 휴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들 소식통은 하마스가 요구하는 보장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마스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전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계획과 제의에 열려 있지만 어떠한 합의도 침공 종료와 점령군의 가지지구 완전 철수에 토대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수뇌부 6명이 가지지구를 떠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뇌부에는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알카삼, 여단 사령관 등 이스라엘 기습을 주도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지지구 지하 터널에 깊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마스가 종전까지 이어질 포괄적 합의가 아닌 단계적 휴전 논의에도 관심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 손현수 기자



155mm 포탄을 옮기는 우크라이나 병사

나토, 155mm 포탄 22만발 공동구매 1조6천억원 규모…“우크라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2억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의 155mm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온스 스토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탄 공급계약 체결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생산량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 물량은 155mm 포탄 22만발이다. 이를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회원국들이 고갈된 재고를 비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포탄 생산에는 프랑스 방산업체 네스터와 독일 업체 용한스가 참여한다. 초도물량은 2025년에 공급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이번 계약은 나토 조달청(NSPA)을 통한 회원국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국방생산 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부패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뒷面貌에 관련법에 따라 내달 8일 실시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전 선거조작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강성호 기자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페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 100억달러(약 13조3천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공동구매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약 1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 30만 발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생산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아마도 연말까지 130만발에서 140만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탄약 전쟁이 되고 있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회원국이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곧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곽주경 기자

파키스탄 총선 앞 비극…아빠가 정치성향 다른 아들 권총 사살



총선 앞둔 파키스탄 카라치 거리에 내걸린 정당 당기들

다.

민족주의 성향의 아와미민족당(APN) 당원인 아버지는 당초 아들에게 PTI 당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아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놓고)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권총을 아들에게 쏘고는 달아났다”면서 아들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아버지를 쫓고 있다.

아들은 카타르에서 일하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PTI를 창당한 칸 전 총리는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에 올랐다. 이후 파키스탄 실세인 군부와 외교정책 등에서 같은 등을 빚다가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 가

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부패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뒷面貌에 관련법에 따라 내달 8일 실시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전 선거조작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강성호 기자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뒷面貌에 관련법에 따라 내달 8일 실시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전 선거조작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약은 나토 조달청(NSPA)을 통한 회원국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국방생산

유엔, 가지지구 ‘질병+기근’ 동시 위험 경고

WHO “가자 어린이 설사증세 전년대비 26배…질병 확산 심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지지구에서 의료 서비스 붕괴와 열악한 위생 여건 탓에 질병 환자가 급증세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했다.

타리크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설명 자료를 내고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위생 여건이 열악한 가지지구에서는 수많은 질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가지지구 전역의 피란민 보호시설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감염사례는 22만4천600건이며 설사 증세 15만8천 300건, 수도 6천600건, 피부발진 4만4천 550건 등도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12월 가지지구 내 5세 미만 어린이의 설사증세 보고 건수는 8만4천명인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배 많다”며 “의료시스템과 전염병 감시 체계가 복원돼야 하고 인도주의적 휴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지지구의 기근 위험을 경고했다.



구호 식량 보급을 기다리는 가지지구 어린이들

아버르 에테파 WFP 중동 지역 대변인은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자 북부 지역으로 구호식량을 전달한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근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 북부는 WFP뿐 아니라 다른 구호단체들도 진입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며 “산발적으로 식량 배급을 받은 주민들은 다시 구호품 호송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WFP는 이미 작년 12월 가지지구 주민 모두가 식량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도에 따라 ‘정상(Minimal)-경고(Stressed)-위기(Crisis)-비상(Emergency)-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하며 3단계 이상을 급성 식량 위기상태로 본다.

WFP는 작년 12월 8일을 기점으로 가지지구 주민 전체가 3단계 이상으로 접어든 상태라고 밝혔다.

/ 신재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EPISODE 01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NONGHYUP BANK PRESENTS

알아서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서비스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쓸수록 돈되는 디지털 뱅킹이니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답

 NH 은행

조건없이 이체수수료 0원에
다양한 예적금 우대금리까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NH포인트
환율로 돈버는 내맘대로외화BOX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폰부터
핫딜 등 쇼핑할인까지 다양한 서비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076(2023.11.23 ~ 2024.10.31)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국내 중소업체 '비상'…“존폐 위기”

LFP배터리 탑재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 직격탄…“친환경차 확대에 역행”

환경부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국내 전기차 중소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또는 초소형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업체들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국내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곳은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니스 센터에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하락은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해 동안 전기차



국내 전기차 수입/판매 중소기업 긴급회의

사업 확장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쏟아온 중소 업체들이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수개월 공들여 준비한 신차 공급 계획이 보조금 정책 개편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올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초소형 전

기차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P 업체 관계자는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모델 선별, 주행거리 인증 등 일련의 준비기간만 6개월 넘게 소요됐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열지 않고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성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계획에도 없던 땀질식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경된 정책이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업체들은 배터리 밀도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이에 맞춰 개발되는 상황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미 기울어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운동장을 더 기울이겠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 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일부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혼란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안성규 기자



요소수 구매 인파

익산 아톤산업, 베트남서 요소 수입

“요소수 대란 해소 기대”

전북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 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개척했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아톤산업은 이날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 최대 국영 비료회사인 페트로베트남(PVFCCO)과 요소 수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페트로베트남은 협약에 따라 매달 1천500t의 요소수를 아톤산업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아톤산업 또한 이를 원료로 생산한 요소수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에 먼저 공급할 방침이다.

요소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 경유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작동에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이미 여러 차례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다.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톤 산업은 2021년 요소수 품귀현상 때 지역에게 비축 물량을 정가에 공급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쌓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베트남 요소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이 요소수를 생산·공급해 요소수 대란 등 공공 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박민준 기자

갤럭시 S24, 사전예약 3일 만에 인도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사전예약 시작 3일 만에 인도 시장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23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사

전예약 판매량은 21일(현지 시각) 기준 역대 최다인 25만 대를 돌파했다.

회사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가 3주간 기록한 사전예약 판매량을 3일 만에 갈아치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8일부터 인도 시장

에서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4 올트라 등 주력 모델을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는 등 세계 스마트폰 2위 시장인 인도에서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9%로, 중국의 비보(18%), 샤오미

(17%), 리얼미(12%)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라주 풀란 삼성전자 인도법인 모바일 경험(MX) 부문 영업·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큰 성공은 인도 소비자들이 신기술을 조기에 채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압도적인 반응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 차현진 기자

김포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후보 ‘롯데·신라’ 압축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가 최종 낙찰 판문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

쳐 롯데와 신라를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는 DF2 구역은 733.4㎡ 규모로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주류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상품이어서 롯데와 신라는 물론 신세계와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구역은 앞서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입찰에 성공해 5년간 운영해왔다.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의 영업요율 입찰서만 개봉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2개 후보를 뽑았다.

이어 관세청에서 이들 2개 업체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 권정석 기자

이스타항공, 올해 첫 공개채용…두자릿수 규모

이스타항공은 2024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채용은 운항통제, 승무계획, 구매, 인사총무, 영업 등 17개 일반직 부문에서 두 자릿수 규모로 이뤄진다.

앞으로 신설될 홍콩지점 및 필리핀 세부지점에서 근무할 사원(경력)도 이번에 채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아직 홍콩과 세부에 취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홍콩은 취항 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을 보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있고, 세부를 포함한 필리핀 노선도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서류는 이달 28일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서류 심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겸진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에 입사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올해 5대의 항공기 추가 도입과 12개 이상 노선의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어 선제적으로 인력



이스타항공 2024년 상반기 공개 채용

이스타항공과 함께 ‘비상(飛上)’ 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스타항공과 함께 항공 시장을 선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대한민국 축구와 교보생명의 팀플레이는 계속된다

‘국민 간디’ 김현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에 열리는 친선전에서 교보생명과 함께 팀플레이를 선보인다.

교보생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파트너로, 이번 친선전을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SAMSUNG

이 순간만큼은 함께 있지 않아도 좋아요
저도 잠깐 쉬고 있을 테니

공기질이 좋을 때 스스로 팬을 끄는 AI절약

* AI 절약모드는 공기질이 '좋음' 상태를 유지할 때 바람세기를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설정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AI 절약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 미터가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 Energy 서비스에서 AI 절약모드 '월간 목표 사용량 설정'을 최대 절약 모드로 선택하면 즉시 가능되며, 누진단계/적립 설정 모드로 선택할 경우 각 모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AI 절약모드의 가동시간과 에너지 절약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SPOKE 큐브™ Air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가전을 나답게.

“22대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 반대…선거수당 현실화해야”

경남 공무원노조 회견…“노동착취 개선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22대 총선 투개표 등 선거사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위원회는 지난해 말 부정 선거 의혹 제기를 차단하다며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 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검표 추가 도입으로 선거사무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수검표 도입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총선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원될 것으로 우려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다. 투표관리관 수당은 19만원,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7만5천원(자정 넘기면 15만원)이다.



우리나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현실적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모두 투표 시작 전이나 개표 시작 전에 미리 나와 준비하거나 교육받아야 해 선거일에 1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투표사무원의 경우

오전 6시 훨씬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도 해야 해 사실상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투표사무원 수당 13만원은 14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9천2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당은 2024년 최저시급 9천 860원에도 못 미친다.

개표사무 역시 오후 4시께부터 나와 이튿날 새벽까지 일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다.

강수동 전국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은 “선거사무는 지방공무원 사무가 아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고, 원치 않으면 선거사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노동착취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 모든 시·군 공무원들로부터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 서명을 받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사임계를 받아 시·군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전국 공무원노조 경남 부분부장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거사무를 무작정 거부하고 투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일한 만큼 대우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 이민수 기자



고개 떨군 레티화씨

‘건설현장 추락사’ 베트남인 아내 국내 들어와 원청에 사과 요구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명의 베트남인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사족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3일 당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레티화씨와 함께 사고가 난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족은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만 했다”면서 “원정 건설사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레티화씨는 남편과 그의 친구는 지난해 7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자신들이 밭을 딤고 있던 캠피 해체 작업을 벌이다 캠피와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캠피는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로, 업체는 캠피를 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이들을 사전 해체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황순길 기자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위해 지자체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액은 신속집행 대상액 283조6천억원(잠정)의 60%인 170조2천억원이다.

지자체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활용.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 조기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합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집행을 지원하고, 지역

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 김채윤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대구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대구가 출발점”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제 폐지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사례가 출발점이 돼 규제 시행 10여년 만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

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각각 늘었다. 소비자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지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5%인 525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전면 폐지는 대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 흥의찬 기자

달빛철도 특별법 사실상 제정 시한 2월 1일…국회 통과여부 주목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 철도 특별법의 ‘현실적 제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쏟린다.

‘달빛’의 양 죽인 광주시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민관 등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 정치권에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넘겨 두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실질적인 시한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지은 이름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길이 198.8km, 연안된 영호남 지역민은 1천700만 명에 달한다.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 가량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깔리면 1시간대로 줄어든다.

현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면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기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 없다”며 “유독 동서 혈맥을 잇는 달빛 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

다”고 비판했다.

낮은 경제성에 대한 우려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시선도 걸림돌이다.

광주시는 “경제 논리가 만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애초 비용 대비 편익(B/C)이 0.11에 그쳤지만, 개통 이후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제시했다.

B/C가 0.39에 불과했던 호남고속철도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 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 양희진 기자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기 잘했다!

함께,약속 DB손해보험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02.16 – 25

BEXCO
BUSAN
KOREA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서천특화시장 화마 키운 소방설비…불길 치솟는데 감지 늦어

소방 점검에선 ‘이상없음’…화재 인식·신고까지 20여분 걸려



22일 밤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점포 상당수가 전소된 가운데, 화재 탐지·속보 설비가 뒤늦게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탐지·속보기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난 뒤 20여분간 화재 상황을 감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늦어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소방당국은 발발 지점으로 1층 수산물 점포를 특정, 스파크가 튀면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건물을 활용한 외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전날 밤 1층 점포에서 빨간 불꽃이 일기 시작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점’처럼 보이던 불이 약 5분 동안 점점 선명해지고 커지면서 점포 전체를 밝혔고, 10분 뒤에는 인근 점포로 불이 옮겨붙

기 시작했다.

20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했지만, 이미 시뻘건 불덩이가 점포 천장에서 떨어지고, 내부 서까래가 내려앉을 만큼 불길이 카진 뒤였다.

소방당국이 자동 화재 속보기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은 오후 11시 8분께로, 선착대는 3분 만인 11시 11분께 도착했지만, 불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카진 뒤로 화재 초기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화재탐지·속보설비, 육내소화전, 방화셔터 등이 설치됐고, 지난해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민간 관리업체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

지난 1일에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소방 당국이 직접 이 건물을 점검했지만, 당시에도 방화셔터 수동기동 불량 외 화

재탐지·속보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면, 작동과 동시에 탐지·속보 설비로 전달돼 즉각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추후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지체됐다면 시설물 단선 등의 문제로 일부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규 건양대 재난안전소방학과 교수는 “밸화지점 근처 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회선이 단선돼 작동되지 않았고, 불이 인근 점포로 번진 뒤에야 다른 스프링

러를 통해 감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상인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특화시장 입구 조형물 등으로 펌프차 등 대형 소방 장비 진입이 어려워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시장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진입로가 비좁아졌다”며 “불 나고서 바로 물을 뿌려야 하는데 큰 소방차들이 못 들어오니까 대처가 늦어진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은 “수산물 시장이라 냉각 기기에 전기설비, 물이 가까이 있어 항상 걱정스러웠다”며 “지금까지도 시장 내부에서 불이 몇차례 난 적이 있는데 군에서도 대형화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설확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고 초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시설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며 “화재 직후 소방설비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2층에서 일부 연기 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 송원기 기자



초등학교 입학식 준비하는 교사

경기도 초등학교 올 신입생 10만명대로 떨어져…작년보다 10% ↓

저출생 영향으로 경기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취학 대상자는 10

만8천104명이다. 지난해 12만519명에서 1만2천415명, 10.3% 줄어든 수치이다.

2022년에는 12만9천784명으로 지난해 9천265명(7.1%) 줄었는데 올해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여주 이포초와 흥천초, 파주 적암초,

포천 종리초, 평택 진위초 산대분교장 등

이동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대치동과 함께 수도권 최고 인기 학군으로 꼽히는 성남 분당구의 초등학교들도 입학생이 갈수록 줄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수내중학교, 내정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분당 내에서도 인

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소재가 전혀 확 인되지 않는 10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상했던 것 보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더 많이 줄었다”며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자체적,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돼지머리 무혐의로 억울함 풀려” vs “이슬람 혐오 막아야”



비대위 기자회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가 불법 스텝드 볼트 부실 공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인데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자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슬람교에서 금기 시하는 돼지를 사원 예정지 앞에 놔뒀음에도 이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는 검찰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슬람 혐오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둑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사업부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 민성준 기자

남양주시장 “올해 신청사 건립 추진…2032년 완공 목표”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3일 “올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2032년 완공 목표”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도시 성장에 맞춰 행정서비스 체계가 변화해야 급변하는 환경과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인구는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합쳐 출범할 당시 23만명이었다. 이후 별내, 진접, 다산 등 신도시가 잇따라 건립돼 인구 유입이 가속하면서 현재 74만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3기 신도시인 왕숙 1~2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어 2035년 이전에 1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시장은 “신청사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성, 개방



성, 상징성 등을 갖춘 미래 도시형 융복합 행정타운”이라며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건립 재원과 방식, 공간 배치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설계 등 행정

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다산동 2청사 용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천300억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200억~250억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노승현 기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버팀목

건설공체조합은 지난 59년간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공장·오피스빌딩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보증과 공제(보험)사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연금을 이전하라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상시 상담관리까지
연말 정산도 역시 **하나연금닥터**



하나은행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하나은행

※하나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입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운영시간(영업일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3-광고-07437호(2023.10.30) / CC브랜드 231026-0255

'지메시' 지소연, '세계 최강' 미국 무대 가나…“사인만 남아”

'지메시' 지소연(33·수원FC)이 여자 축구 세계 최강 미국 무대 진출에 도전한다.

23일 축구계에 따르면 지소연은 미국 여자축구리그(NWSL) 시애틀 OL레이너과 이적 논의를 거의 끝마쳤다.

시애틀 구단이 지소연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세계 최강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지소연의 뜻이 맞았다. 양측은 서류상 사인만 남겨둔 상태다.

2011년 일본 고베 레오네사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지소연은 2014년 한국 여자축구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했다.

지소연은 줄곧 웰시에서 뛰며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6회, 여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회, 리그컵 2회, 커뮤니티 실드 1회 등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을 위해 대부분이 WK리거인 대표팀 선수들과 더욱 더 호

흡을 맞추고 WK리그 흥행을 이끌고자 했던 지소연은 2022시즌 수원FC의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지소연은 지난해 인천 현대제철과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수원FC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2차전에서 2-6 대패로 현대제철의 WK리그 통합 11연패를 막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시즌 WK리그 미드필더상을 받은 지소연은 여자 축구 대표팀의 대회보로서 A매치 154경기에서 69골을 넣으며 한국 남녀 선수를 통틀어 최다 경기 출장, 최다 득점 기록을 쓰고 있다.

/ 최준용 기자



추성훈, 2년여 만에 격투기 복귀전

네덜란드 전설과 맞대결

봄슬레이 소재환 금빛 레이스…바이애슬론서 첫 3관왕

스켈레톤 신연수 동메달 추가…한국 루지 계주팀 최고 성적 4위



23일 강원 평창군 슬라이딩센터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봄슬레이 남자 모노복(1인승) 메달 세리머니에서 한국 소재환이 금메달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주최, 평창기념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선수 육성 사업에 참가한 선수로, 이 사업을 통해 봄슬레이를 처음으로 접했다.

동료 여자 선수 2명과 함께 강원 2024에서 성인 올림픽을 통틀어 뛰어난 최초의 동계 올림피언이 된 루리미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여자 모노복에서 은메달을 딴 태국의 캄페올 아그네스도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개도국 육성 사업 출신 선수여서 평창의 전설을 이를 내리 살찌웠다.

셀매 종목에서는 또 다른 낭보가 전해

졌다.

상지대관령고의 신연수가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분 46초 05의 기록으로 애밀스 인드리크손(라트비아·1분 44초 66), 야로슬라브 라브레니우크(우크라이나·1분 45초 67)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김소윤(신명여고), 김보근, 배재성(이상 상지대관령고), 김하윤(사리율중)으로 이뤄진 한국 루지 계주팀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2분 32초 910의 기록을 합작해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셀매 종목 중에서도 루지의 국내 저변은 얕은 편으로, 지난 세 차례 동계 청소년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가 출전한 적이 없다.

계주 종목은 여자 싱글, 남자 싱글, 더블 순서로 주행해 합산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강원 2024 흥보 등을 맡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프렌즈(Olympic friends)인 그룹 샤이니의 민호의 응원을 받은 우리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희망을 쌌다.

지난 19일 개막해 20일부터 본격적인 메달레이스를 시작한 강원 2024 대회 4일 차에 첫 3관왕이 탄생했다. 프랑스의 앙토냉 기(17)는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벌어진 남자 7.5km 스프린트 종목에서 시상대의 주인공이 됐다.

이미 남자 개인 12.5km, 개인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기는 강원 2024 첫 3관왕으로 대회를 빛냈다.

빙속 여자 장거리 기대주 임리원(16·의정부여고)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2분 6초28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다.

전날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딴 단거리 전문 정희단(16·선사고)은 2분 10초 60의 성적으로 13위에 올랐다.

남자 1,500m의 하석(16·의정부고)은 1분 55초78로 10위, 전날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신선웅(16·별내고)은 1분 58초52로 16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가 금메달 7개 등 11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순위 1위를 달리며, 우리나라에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로 5위에 올랐다.

/ 배찬영 기자

추성훈(49·일본인 아kiyama 요시히로)이 674일(1년 10개월 3일) 만에 파이터로 무대에 선다.

추성훈은 2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니키 홀즈컨(41·네덜란드)과 '원챔피언십 165' 대회에서 특별 규칙 슈퍼 파이트 경기를 치른다. 추성훈은 아시아 유도 최강자 출신으로 종합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뒤에도 열 손가락에 꼽히는 강자로 전성기를 보냈다.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입식 타격 단체인 K-1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2009년 UFC로 이적해 2승 15패를 남겼다.

원챔피언십으로 이적한 뒤에는 2승 1패를 거뒀다.

추성훈은 최근 경기인 2022년 3월 아오카 신야(일본)전에서는 2라운드 TKO 승리를 따낸 바 있다.

추성훈의 종합격투기 전적은 16승 7패다. 2015년 영국 격투기 단체 '글로리'에서 웰터급 챔피언을 지낸 홀즈컨은 2019년에도 원챔피언십에서 두 차례 킥복싱 타이틀을 차렸다.

홀즈컨은 종합격투기를 무려 112경기 나치렀고, 94승 18패를 거둘 만큼 경험이 풍부한 선수다.

추성훈과 홀즈컨의 경기는 3분 3라운드, 계약 체중 85kg, 종합격투기 글러브 착용, 1라운드 복싱·2라운드 무에타이·3라운드 종합격투기 방식으로 치러진다.

라운드별로 규칙이 다른 것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다.

유도가 기반인 추성훈으로서는 입식 타격이 전문인 홀즈컨을 맞아 1라운드 복싱과 2라운드 무에타이에서 버티는 게 관건이다.

/ 오성준 기자

강원FC 김병지, 선진 축구 배우러 협력 구단 세비야 찾는다



프로축구 강원 FC의 김병지 대표 이사가 선진 축구 시스템 견학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스페인 명문 세비야FC를 방문한다.

23일 강원과 세비야 구단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스페인 세비야를 찾아 프리메라리가(리그) 세비야FC 유소년 아카데미 등 산하 인프라를 견학한다.

/ 노건우 기자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험급여지급



빠른 배우자를 드는!

02

요양 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우리가 피해자…법정서 다툴 것”

“나팔꽃 대표, 문서 위조해 등기…고소당하자 여론몰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수미와 아들이 자신들은 피해자이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의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 “(김수미 모자가) 피해자인 데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송모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식품회사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고 설명했



배우 김수미

다. 나팔꽃 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한 회사

다.

장 변호사는 또 “나팔꽃 F&B의 정명호 대표이사는 작년 11월 송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 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 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씨가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했다”며 “송씨는 김씨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 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팔꽃 F&B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이현주 기자



‘세븐틴 동생 그룹’ 투어스,

데뷔일에 20만장 팔려 앨범차트 1위

‘세븐틴 동생 그룹’으로 관심을 끈 플레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TWS)가 데뷔 당일 20만 판매고를 올리며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23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투어스의 데뷔 음반 ‘스파클링 블루’(Sparkling Blue)는 전날 20만6천 240장이 팔려 ‘일간 피지컬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투어스는 또한 음원 차트에서도 앨범에 수록된 전곡을 멜론의 최신곡 차트인 ‘핫 100’ 차트에 진입시키는 등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스파클링 블루’는 전날 기준 총 11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태국과 인도에서는 1위에 올랐다.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스파클링 블루’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음악을 앞세운 독자 장르 ‘보이후드 팝’(Boyhood Pop) 앨범이다.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강렬한 드럼과 인상적인 기타·신시사이저 사운드가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팝 장르의 곡이다.

/ 장수경 기자

임영웅 콘서트서 나문희 ‘깜짝 사연’ “남편이 먼저 하늘로”



임영웅(좌)과 나문희(우)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고양 공연에 배우 나문희가 참석해 지난달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연을 적어내 화제가 됐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양 캠퍼스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임영웅이 직접 팬의 사연을 읽어주는 ‘임영웅의 스페이스’ 코너에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의 사연이 등장했다.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먼저 하늘로 떠났다”고 그리움을 나타냈다.

곧이어 사연의 주인공인 배우 나문희가 공개됐다.

‘호박고구마’는 MBC TV 시트콤 ‘거침

없이 하이킥’에서 나문희가 박해미와 다툼하며 내뱉은 대사로, 온라인 공간에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나문희는 지난달 19일 남편상을 치렀는데, 떠나간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절절한 사연으로 제출한 것이다.

공연장 전광판에 나문희의 모습이 잡히자 장내는 놀라워하는 관객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나문희는 이날 파란 마스크를 쓴 채 영화 ‘소풍’에 함께 출연한 배우 김영옥과 함께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임영웅도 나문희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며 “제 노래로 위로받고 계시다니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공손히 소감을 밝혔다.

/ 최은성 기자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

YG엔터테인먼트는 설립자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로써 양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6.8%에서 19.3%로 증가했다.

양 총괄 프로듀서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올해 준비 중인 사업과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YG는 지난해 12월 대표 IP(지식재산권) 블랙핑크와 ‘그룹 활동’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

또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다

또 다른 신인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YG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

양현석 지분율 16.8%→19.3%

“연내 한 팀 이상 신인 데뷔 목표”

음 달 1일 두 번째 신곡, 4월 1일 첫 번째 미니음반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YG는 “이 같은 촘촘한 로드맵으로 베이비몬스터의 본격적인 국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 트레저는 3월 초까지 대규모 일본 투어를 마친 뒤 신곡 준비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YG는 특히 연내 베이비몬스터 외에

외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글로벌 신인 발굴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올해 안에 한 팀 이상의 신인 그룹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 및 글로벌 마켓 공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자사주 매입은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 박소희 기자

엑소 백현, 3월 16~17일 단독 콘서트



그룹 엑소의
백현이 오는 3월
16~17일 서울 송
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22일 소속사 아이엔비100에 따르면 이

번 공연은 백현이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여는 오프라인 솔로 콘서트다. 지난 2021
년 열린 첫 솔로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전
행됐다.

이 밖에도 백현은 지난 20~21일 서울
을 시작으로 27일 광주, 2월 3일 부산에서
도 팬미팅을 개최한다.

/ 오수진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합니다

KB국민은행